

釜山과 對馬島의 婚禮俗 비교 연구*

한 태 문**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婚禮俗에 반영된 두 지역민의 의식세계 |
| II. 대상 지역 개관과 조사 경위 | V. 맺음말 |
| III. 婚禮俗의 실상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를 극복하고 상대에 대한 근원적이고 진솔한 이해를 위해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형성된 通過儀禮 가운데 傳統婚禮俗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비교 대상지역으로는 부산과 對馬島를 선정하였는데, 이들 지역이 양국을 잇는 최단거리라는 지리적 인접성과 ‘왜관’과 ‘통신사’로 대표되는 역사적 친연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두 지역의 혼례속을 議婚·大禮·後禮로 나누어 살핀 결과, 議婚에서는 부모에 의한 배우자의 선택·중매인의 개입·말띠 여자의 기피·納幣의 존재 등에서 공통점을 보인 반면, 通婚圈·중매인의 자격·擇日·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0332).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納幣物을 통한 길흉 예측 등에서 부분적 차이를 보였다. 또 大禮에 있어서도 예식시간·신부 입장시의 의식·交拜禮·합쥬禮 등에서 공통점을 보인 반면, 對馬島는 奠雁禮·東床禮와 같은 의식이 없고, 예식장소·초례상 진설물·예복 갈아입기 등에서 부분적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後禮에서는 신부의 첫 친정나들이와 시가에 도착한 신부가 행하는 儀式 등에서 공통점을 보인 반면, 부산에 비해 對馬島의 後禮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화되어 있었다.

이처럼 양 지역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친연성 및 농경문화·불교문화·유교문화를 공유한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이고, 차이점은 ‘가족주의’와 ‘지역사회로의 귀속의식’을 중시하는 양 지역민의 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 지역의 혼례속은 생활단위로서의 地緣意識과 유교적 血緣意識을 접합함으로써 家族主義와 入社統合意識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혼례속, 의혼, 대례, 후례, 가족주의

I. 머리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 전승되는 연례행사처럼, 한국과 일본 양국은 거의 매년 같은 외교적 문제를 사이에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날을 세우곤 한다. 곧 종군위안부, 독도 영유권, 역사교과서 왜곡, 야쓰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일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자행되는 일련의 사건들이란 점이 특징이다. 이런 우리의 처지를 “옆집에 습관성 가해벽을 가진 망나니를 두고 있는 이웃”¹⁾에 빗

1) 송영, 「對馬島를 한국의 자치령으로 돌려야 한다-능골시론」, 『실천문학』 2001년 가을호, 통권 63호, 실천문학사, 2001, 251쪽.

대거나,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의 괴리로 뒤튼린 양국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양국간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의 기저에는 다분히 상대국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부정적 선입견이 깔려 있다. 이는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따라서 善隣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오랜 역사과정을 통해 형성된 基層文化와 같은 상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진솔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대표적인 기층문화로 通過儀禮를 들 수 있다. 통과례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디가 되는 출생·성년·혼인·회갑·죽음 등에서 거행하는 의례로,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그 가운데 혼인의례 곧 婚禮는 成人이 된 남녀가 부부로 결합하는 의례로, 가정을 이루고 家業을 계승하며 자녀를 출산하여 집안을 번성케 하기에 예로부터 三綱의 근본이자 인류의 시초로²⁾ 여겨져 왔다. 따라서 다른 어떤 의례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虛婚’이나 ‘死後婚’의 풍속이 양국에서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데서³⁾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혼례속에 대한 연구는 產育俗·喪禮俗과 함께 양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을 광범위하게 잡다 보면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釜山과 對馬島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는 이들 지역들이 양국을 잇는 최단거리(50km)라는 지리적 隣接性과, ‘倭館’과 ‘通信使’로 대표되는 역사적 親緣性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진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한일 양국의 婚禮俗에 대한 비교연구는 그리 활성화된 편이 아니다.⁴⁾ 특히 對馬島의 설화, 민요, 產育俗과 喪禮俗 등에 대한 연구⁵⁾

2) 李肯翊, 『練藝室記述』, 別集 卷12, 政教典故, 婚禮條. 婚禮 三綱之本 正始之道.

3) 魯成煥, 「韓國의 死後結婚」, 『比較日本文化研究』, 待兼山比較日本文化研究會, 1998; 竹田旦, 「死靈結婚の比較民俗學」, 『祖靈祭祀と死靈結婚』, 人文書院, 1990; 姜龍權, 「虛婚에 관한 연구」, 『民族文化』2호, 동아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0.

4) 이연숙, 「絶離와 統合으로 본 통과례의 공통성과 그 의미-혼례와 장례를 중심

는 있어도 對馬島의 婚禮俗과 관련지은 연구는 그나마 임동권, 한태문의 연구가 고작이다. 임동권은 對馬島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는 『日本 對馬・壹岐島 綜合學術調查報告書』에서 ‘對馬島의 民俗’을 民間信仰・年中行事・口碑傳承・俗信・産育俗・어촌의 민속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 중 혼례속과 관련 있는 부분은 ‘俗信’에 등장하는 금기사항으로, ‘여자 丙午生은 시집 못간다.’·‘여자 丙午生은 남편 잡아먹는다.’·‘여자 19세와 남자 25세는 혼인하지 않는다.’⁶⁾등을 적어두고 있을 뿐이다. 한태문 역시 通信使 使行錄에 반영된 江戸時代 對馬島의 모습을 살피면서 ‘漆齒’·‘同姓結婚’·‘兄死娶嫂’와 같은 婚俗을 부분적으로 살피고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과 對馬島의 傳統婚禮俗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먼저 양 지역을 개관하고 조사경위를 밝힌 다음, 양 지역 혼례속의 실상을 비교하여 그 속에 반영된 지역민의 의식을 살피기로 한다.

으로, 『새얼語文論集』16집, 새얼어문학회, 2004; 崔仙銀・劉頌玉, 『韓國과 日本의 婚姻儀禮에 따른 婚禮服飾 比較연구-조선후기와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예술학회지』1집, 한국동양예술학회, 2000.

5) 노성환, 「對馬島의 神功皇后傳承에 關한 研究」, 『일본연구』1집, 울산대학교 일본연구소, 2002, 29-55쪽; 류종목・정규식・박기현, 「부산과 대마도 설화의 전승양상과 유형별 비교」, 『한국민속학』41집, 한국민속학회, 2005, 255-302쪽; 김현선, 「한국 민요와 대마도 민요의 비교 연구」, 『한국민요학』8집, 한국민요학회, 2000, 33-57쪽; 한태문, 「釜山과 對馬島의 産育禮 比較 연구」, 『한국민족문화』24집,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407-451쪽; 최인택, 「쓰시마의 양묘제(兩墓制)와 묘제의 변천」, 『일본연구』1집, 울산대학교 일본연구소, 2002, 57-79쪽.

6) 임동권, 「민속분야」, 『日本 對馬・壹岐島 綜合學術調查報告書』, 서울신문사, 1985, 102쪽.

7) 한태문, 「通信使 使行錄에 반영된 對馬島」, 『일본연구』1집, 울산대학교 일본연구소, 2002, 17-19쪽.

Ⅱ. 대상 지역 개관과 조사 경위

1. 釜山과 對馬島

부산광역시는 한반도의 南東端에 위치한 한국 제2의 대도시이다. 약 359만 명(남 179만 명, 여 180만 명)의 인구에, 면적은 765.94km²이고 모두 15區 1郡으로 이루어져 있다.⁸⁾ 온대 계절풍 기후대와 대륙동안 기후대에 속한 데다 대한해협에 접해 있어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 결과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 않고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은 반도국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지정학적 관계로, 예로부터 대륙과 해양 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 결과 조선시대에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한반도 최남단의 국방요충지이자 외교와 무역의 공식창구라는 엇갈린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곧 부산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양국을 오가며 공식적인 외교활동 외에 문화교류를 화려하게 펼쳤던 통신사의 渡日 최종집결지이자, 對馬島人이 상주하여 ‘조선 속의 작은 일본인 마을’로 통칭되던 ‘倭館’이 있었던 곳이다.

對馬島는 일본 九州 최북단에 위치한 長崎縣 소속 13개 市 가운데 하나로, 2009년 4월 현재 36,414명(남 17,733명, 여 18,681명)의 인구에 면적은 708.66km²이며, 1市 6町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 약 82km, 동서 18km의 가늘고 긴 모양을 하고 있는 對馬島는 新瀉縣의 佐渡島와 鹿兒島縣의 奄美大島에 이어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對馬島 暖流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온난하고 비가 많은 해양성 기후를 띤다. 하지만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에다 큰 섬 2개와 107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고, 섬 면적의 89%가 산림으로 경지가 부족해 자급자족이 힘든 생활여건을 지니

8) 각종 통계자료들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제47회 부산통계연보』(부산광역시, 2008)와 對馬市 공식 웹사이트인 ‘對馬市WEB通信局’에 탑재된 <統計データ>를 참조하였다.

고 있다.

2004년 3월 1일 6町(嚴原町・美津島町・豊玉町・峰町・上縣町・上對馬町)이 합병하여 현재의 對馬市가 탄생하였는데, 무려 138km나 떨어진 福岡보다 부산까지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리적 근접성은 부산과의 親緣性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로 자주 거론된다. 특히 최근에는 매년 8월이면 ‘對馬島 아리랑축제’・‘對馬島 친구음악제’ 등 한국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베풀어져 그 유대관계가 남다른 편에 속한다.

2. 조사 경위

민속 연구의 신뢰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문조항, 면밀한 현장답사와 정리, 그리고 꼼꼼한 분석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한일 민속의 비교 연구는 비교 대상이나 記述태도의 불균형으로 객관성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對馬島와 부산을 구체적인 비교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공동 설문조항을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통해 양 지역 婚禮俗의 특징과 의미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현장조사의 경우 부산지역은 通信使와 직접 관계를 지닌 기장・초량・범일동・용두산 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을 취했다. 현장조사는 틈틈이 이루어졌으나, 보조원⁹⁾의 힘을 빌어 대규모 조사가 실시된 것은 2007년 8월 초였다. 많은 제보자 가운데 초량과 범일동 일대에서 70년을 거주한 윤명○(여, 88세)님을 비롯한 50명(남 20명, 여

9) 현장조사는 정훈식・류경자・조수미・정은영・임신주 등 대학원생의 협조를 받아 범일동(넬박경로당)・수정동(동구자원봉사센터)・초량동(구봉성당, 고관노인정, 새마을경로당)・영주동(민주공원)・광복동(용두산공원)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빌어 이들과 유재○(남, 82세, 동구 수정1동 :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실명을 다 적지 않기로 함)를 비롯한 제보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장지역은 필자가 1997년 1달에 걸쳐 조사한 자료(김승찬 외, 『기장군 문화유적과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가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

30명)을 가려 뽑아 이를 토대로 혼례속을 재정리하였다.

對馬島지역은 모두 두 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 조사(2007. 8. 24-27)에는 통신사행이 부산을 출발하여 처음 도착한 佐須浦와, 옛날 對馬島主가 거쳐하던 곳이자 통신사행을 맞이한 客館이 있었던 嚴原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뒤 수거하는 방식을 취했다.¹⁰⁾ 그리고 2차 조사(2007. 10. 3-6)때에는 1차 조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면접조사 방식을 취했다. 對馬島에서도 조사에 응한 분은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嚴原町에서 47년 거주한 庄野伸十○(남, 65세)를 비롯한 33명(남 15명, 여 18명)을 중심으로 혼례속을 재정리하였다.

Ⅲ. 婚禮俗의 실상

우리의 혼례 절차는 『周禮』·『禮記』 등의 ‘六禮(議婚·問名·納吉·納徵·請期·親迎)’와 『朱子家禮』의 ‘四禮(議婚·納采·納幣·親迎)’로 대표되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李宰의 『四禮便覽』(1844)은 『朱子家禮』의 허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와 함께 조선조 婚禮의 규범이 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 혼례에서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었고¹¹⁾, 오히려 민중들 사이에는 婚談·四柱·擇

10) 對馬島는 매마침 홈스테이를 위해 對馬島에 도착한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화진 교수와 학생, 그리고 對馬島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中田 ○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 부산처럼 처음부터 면접조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집안에 이방인을 끌어들이기 싫어하는 對馬島 제보자들을 고려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이들과 자신의 결혼식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해 준 平山喜代○(남, 51) 및 설문조사에 흔쾌히 응해준 梅田 ○(여, 83세)을 비롯한 제보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11) 이광규, 「우리 나라의 혼례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12, No2,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7, 204쪽. 대표적으로 禮書에는 한결같이 ‘親迎’을 신랑집에서 행하는 행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신부집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日・納幣・禮式・于歸로 이루어지는 소위 ‘傳統六禮’ 또는 ‘民俗六禮’가 일반적으로 행해졌다.¹²⁾

일본의 전통적인 결혼 형태는 혼사에 따라 婿入婚・嫁入婚・年期婿・足入婚・寢宿婚 등으로 나뉜다.¹³⁾ 그 중 크게 신랑이 妻家에 데릴사위로 들어가는 ‘婿入婚’과 신부가 남편을 따라 시집가는 ‘嫁入婚’으로 양분되며,¹⁴⁾ 근세 이후 오늘날까지는 대체로 ‘嫁入婚’이 주류를 이루어 우리의 혼례형태와 그리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제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혼례식에 앞서는 議婚, 혼례식이 중심인 大禮, 대례 후의 행사인 後禮로 나누어¹⁵⁾ 살피기로 한다. 다만 그 의식의 명칭에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서술의 편의상 우리 婚禮俗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항목으로 설정하여 살피기로 한다.

1. 議婚

중매인이 결혼할 적령기¹⁶⁾에 이른 총각・처녀의 兩家를 드나들면서 혼담을 진행시켜 혼인을 결정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와, 혼인결정 이후 양가의 문서 교환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이 ‘의혼’이다.

12)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174쪽. 최근에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추어 허례의식을 버린 다양한 현대혼례 모형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현주・박서정・지영숙, 「혼례비용 및 혼례 준비과정 표준화」, 『생활과학』6집,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3; 김복일 외, 「한국 혼례의 현대적 모형」, 『한국여성교양학회지』2집, 한국여성교양학회, 1995.

13) 박계홍, 『비교민속학』, 형설출판사, 1990, 159쪽.

14) 황성규・한태호 편, 『일본・일본인론』, 교학연구사, 1984, 59쪽. 婿入婚과 嫁入婚의 상세한 비교는 井之口章次 편, 『人生儀禮』, 有精堂, 1978, 47쪽의 도표 참조.

15) 이광규, 앞의 논문, 204쪽.

16) 부산은 남자는 18세에서 30세까지 두루 분포하되 24・27・28세가, 여자는 16세에서 26세까지 두루 분포하되 18・20・23세이다. 16세에 시집간 정순○(여, 83세)은 ‘정신대’에 팔려간다는 소문 때문에 早婚했다고 한다. 對馬島는 남자 30세, 여자 25세를 적령기로 본다.

1) 결혼의 意中 탐색

양 지역 모두 상대를 부모님이 결정한 점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通婚圈이 다른 마을이었던 부산에 비해, 對馬島는 대체로 같은 마을이었으며, 다른 마을에 시집간다 하여도 그리 멀지 않았다.¹⁷⁾

양 지역 모두 상대의 결혼에 대한 의중을 탐색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부산은 이를 ‘중매쟁이’·‘중신애비’·‘媒婆’라고 불렀다. 對馬島는 대부분 ‘仲人’ 또는 ‘媒酌人’이라 부르고,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큐피트[キューピッド]’나 ‘쵸우친모치[提燈持ち]’¹⁸⁾라 부른다. 전자는 美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 사이에서 태어나 불타는 사랑의 화살을 쏘아대는 ‘에로스(큐피트)’와 같은 역할을 仲人이 하고 있음을, 후자는 提燈을 들고 밤길을 밝히는 사람처럼 仲人이 두 미혼 남녀의 앞길을 밝혀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중매자는 부산의 경우 직업적 중매인인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이웃·친척·장차 시누이 될 이’이고, 對馬島는 친척도 있지만 ‘직장 상사·선배’가 대부분이다.

의혼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어 혼인이 성사되었을 경우 중매자에게 부산은 ‘옷·버선·담배·신발·돈·술’ 등을, 對馬島에서는 ‘돈’을 謝禮로 드리는데 그 금액은 많을 경우 10만엔 정도이다. 특히 일본의 결혼에 있어 仲人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¹⁹⁾ 對馬島에서는 결혼 후 3년 동안 中元(7월 15일)이나 연말에 仲人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관례이다.

17) 小松勝助, 「對馬民俗ノート」, 『對馬風土記』25호, 對馬郷土研究會, 1989, 58쪽.

18) 다른 지역에서는 중매인을 ‘다리놓기’의 뜻을 지닌 ‘하시카케[橋掛け]’나 ‘사다리’의 뜻인 ‘하시고[梯子]’라 부르는데, 모두 상대를 이어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홍윤기, 『일본문화백과』, 서문당, 2000, 132쪽.

19) 실제 平山喜代○의 결혼식 비디오테이프에도 혼례식과 피로연 모두 식장의 중앙에는 신랑과 신부 양쪽에 仲人인 佐伯熊○와 그의 처 佐伯ツタ○가 앉았다. 황달기의 연구(「혼례에 있어서의 혼수의 의미」, 『일본학보』25집, 한국일본학회, 1990, 436쪽)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이들 부부와 仲人이 영원히 擬制的 親子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宮合

궁합은 총각과 처녀의 사주를 서로 맞추어 자식을 낳아 백년해로하며 잘 살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궁합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²⁰⁾ 비해 對馬島는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산의 경우 궁합을 보는 곳은 대체로 ‘점집’이나 ‘마을의 어른’이고, 對馬島는 극히 일부분이 출판사 발행의 ‘曆本’을 참고하거나, ‘점집’에서 보되 대체로 ‘혈액형점’·‘별점’·‘성명점’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쁜 궁합으로 부산은 ‘사주가 서로 맞지 않을 때’나 ‘남여 나이차가 6개월일 때’이며, 특히 백말띠·범띠·용띠의 여자는 ‘팔자가 거세다’ 하여 꺼리는 경향이 있다. 궁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경우 부적을 지니기도 한다. 궁합을 중시하는 않는 對馬島는 ‘남자 25세’, ‘여자 19세’, 또는 ‘4살이나 10살 차이’ 및 ‘말띠 여자는 남자를 잡아 먹는다.’²¹⁾ 하여 결혼을 꺼린다. 이 중 25세 남자와 19세 여자의 결혼을 꺼리는 것은 일본에 만연된 厄年 풍속에 기인한 것이다. 厄年은 陰陽道の 영향을 받아 어느 특정 연령을 災厄이 많은 해로 간주하고 특별히 근신하는 풍속이다. 지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남자는 25세·42세·61세이고, 여자

20) 장하경의 연구(『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집, 한국가정관리학회, 1996, 155쪽)에 의하면, 오늘날 64.6%나 궁합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 혼례에서도 궁합은 여전히 중요한 의식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21) 美津島町誌編輯委員會, 『美津島町誌』, 美津島町役場, 1978, 745쪽. 丙午는 六十甲子の 43번째 干支로 五行상 모두 ‘火’에 속하는 날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고 믿어졌다.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이런 俗信은 江戸시대 도시민을 중심으로 정착되었는데, 그 사이 “丙午년에 태어난 여자는 지아비를 잡아먹는다.”는 미신이 생겨 丙午년에 결혼식을 피하거나 태어날 아이를 고의로 流産, 落胎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福田アジ오 외, 『日本民俗大辭典』下, 吉川弘文館, 2000, 434쪽 참조. 반면 한국에서는 조선조에 成宗의 계비 貞顯王后, 仁祖비 仁烈王后, 孝宗비 仁宣王后, 顯宗비 明聖王后가 모두 말띠였음을 들어 말띠 여자를 꺼리는 풍속은 일제 통치하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마치 우리 풍습인양 둔갑하고 있어 청산해야 할 습속 중의 하나로 간주하기도 한다. 표인주,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예술』, 민속원, 2004, 292쪽.

는 19세·33세·37세가 보편적이며 특히 남자 42세와 여자 33세를 가장 주의해야 하는 厄年으로 간주한다.²²⁾

3) 擇日

택일은 달리 ‘涓吉’·‘날받이’로 불리는데, 그 전통이 삼국시대까지 소급될 정도로²³⁾ 신랑 신부의 미래와 연결된다고 보아 대체로 신중하게 잡는 법이다. 부산은 대체로 상대방의 견해도 참고하여 신부측에서 잡되²⁴⁾ 점쟁이나 궁합보는 사람이 날짜를 잡아 준다. 對馬島는 신랑 신부 당사자가 서로 의논하여 날짜를 잡는다.

혼례하기 좋은 吉日로 부산은 ‘궁합을 본 곳에서 정해진 날’이나 ‘손 없는 날’이며 극히 일부의 응답자가 ‘신부배란일’을 들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결혼과 생식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對馬島는 결혼이나 사업 등에 좋은 날로 손꼽히는 ‘大安’이 혼례에 적합한 날이며²⁵⁾ 특히 6월의 大安日이 좋다고 한다.

꺼리는 날로 부산은 ‘부모님 결혼한 달’·‘궁합을 본 곳에서 금지한 날’·‘음력 1월’·‘음력 2월’·‘손 있는 날’ 등인데, 이런 날 결혼하면 자식이 없거나 불행하게 산다고 여긴다. 對馬島는 하루 종일凶한 ‘佛滅日’과

22) 편무영, 『일본인의 인생의례』, 『일본민속의 이해』, 시사일본어사, 1997, 174쪽.
 23) 『三國史記』 卷48, 列傳8, 『薛氏女』. 願君赴防 交代而歸 然後卜日成禮(밑줄 필자).
 24) 택일을 신부집에서 하는 이유를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여성의 월경과 같은 신부의 생리적 현상에 대한 절대적 금기가 작용한 결과로 보기도 한다. 장철수, 『平生儀禮와 政策』, 『비교민속학』10집, 비교민속학회, 1993, 43쪽.
 25) ‘擇日’을 달리 ‘六輝’라고도 한다. 이는 당나라 시대 ‘六壬時課’라는 시간의 길흉을 따지는 占에서 유래한 것으로, 14세기에 일본에 들어와 江戸 후기부터 일반에 널리 유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풍속인데, 일본인들은 이를 전적으로 신봉하는 경향이 있다. ‘六輝’는 하루 종일 吉한 ‘大安’, 정오를 제외한 오전·오후가 吉한 ‘友引’, 오전이 吉한 ‘先勝’, 오후가 吉하되 공무가 凶한 ‘先負’, 정오만 吉하되 공무 등이 凶한 ‘赤口’, 하루 종일 凶한 ‘佛滅’ 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혼의 吉日은 ‘大安-友引-先勝’의 순이고, ‘先負-赤口-佛滅’은 기피하는 날이 된다. 김용안,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嚮』, J&C, 2004, 83쪽.

‘집안에 사망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한 달’, ‘1월 1일’과 ‘음력 7월 15일’ 등이다.²⁶⁾ 1월 1일은 설날이고, 음력 7월 15일은 中元, 곧 백중맞이 행사인 ‘御盆’이 행해지는 날로, 한결같이 일본이 가장 소중히 하는 세시명절이다. 이날 결혼식을 하는 것은 하객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밖에 2월과 3월도 꺼리는데, 이는 2월은 ‘도망달’이고, 3월은 ‘떠나가는 달’²⁷⁾이라 하여 결혼을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4) 納幣

혼례날짜가 정해지면 혼인에 대한 증빙 또는 약혼의 의미로 신랑집에서 婚需·婚書·物目を 넣은 함을 신부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納幣’라 한다. 이는 부산과 對馬島 모두 행하고 있고, 그 의식을 부산은 ‘봉채함’·‘봉채’·‘함’·‘예물’이라 부르고, 對馬島는 ‘유이노[結納]’라 부른다.

그 내용물은 부산은 ‘婚書紙’가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 ‘옷·옷감·패물’을 중심으로 ‘화장품·반지·시계·이불·돈’ 등이 올려진다. 특히 혼서지는 함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죽을 때 관속에 넣어 저승에 가지고 감으로써 一夫從事를 상징하는²⁸⁾ 것이 된다. 對馬島는 오랜 예전에는 ‘熨斗(얹게 펴서 말린 전복)’을 비롯한 9가지 품목을 넣었지만, 부부의 緣이 나누어 떨어져 끊어지지 않도록 짝수를 피해 7·5·3가지를 약식으로 넣는 것이 보편적이다.²⁹⁾ 結納의 목록에 술안주의 이름이 남

26) 일본인들은 ‘원숭이날(申日)’을 꺼리고 ‘토끼날(卯日)’·‘닭날(酉日)’을吉日로 보기도 한다. 梅棹忠夫 편·김양선 역, 『일본인의 생활』, 혜안, 2001, 241쪽.

27) 美津島町誌編輯委員會, 『美津島町誌』, 美津島町役場, 1978, 745쪽.

28) 姜在哲, 「韓國婚禮에 나타난 諸習俗의 象徵性 考察」, 『비교민속학』16집, 비교민속학회, 1999, 216쪽.

29) 김용안, 『키워드여는 일본의 響』, J&C, 2004, 72쪽. 9가지 품목은 熨斗·小袖料(禮服費)·太留料(나무술통)·壽留女(말린 오징어)·子生婦(말린 다시마)·友白髮(마로 만든 흰 실)·末廣(흰 부채)·松魚料 또는 勝男武士(말린 가다랑어)·結美和(약혼 반지)’ 등이다. 山口 健(『婚禮事典』, 西東社, 1992, 72쪽)에 의하면

아 있는 것은 원래 婚約이 성립되면 신랑측에서 술과 안주를 仲人을 통해 妻家로 보내는 풍속에서 기인한³⁰⁾ 것이다. 약식으로 할 경우에는 주로 ‘結納金을 넣는 熨斗가 인쇄된 봉투’·‘末廣’·‘백발의 부부인형’ 등을 전달하거나, 상점에서 파는 ‘結納品式 세트’를 중심으로 ‘고기·술·돈·반지’ 등이 들어가는데, 結納金은 대개 給料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대체로 ‘사이좋은 부부가 되어 오래 살라’는 뜻(壽留女·友白髮)과, 또는 ‘자식을 잘 낳기를 기원하는 마음’(子生婦) 등을 담고 있다.³¹⁾

납폐를 들고 오는 사람은 부산은 ‘신랑 친구’·‘신랑’·‘형제’·‘조카’ 등으로 이들을 ‘함진애비’·‘함쟁이’라고 부른다. 對馬島는 ‘仲人’이나 ‘신랑’이며, 양 지역 모두 신부의 부모가 이를 받는다. 이때 부산은 함을 받기 위해 붉은 팔고물을 한 찹쌀 시루떡 2켜 위에 중앙에 밤을 얹고 대추 7개를 에워싼 ‘봉채떡’ 또는 ‘봉치떡’을 준비한다. 팔고물의 찹쌀 시루떡은 辟邪와 함께 부부금슬이 찰떡같기를 기원하는 뜻이고³²⁾, 대추와 밤은 자손 번창, 두 켜의 떡은 부부 한 쌍을 의미한다.³³⁾ 봉채함에서 펼쳐보지 않고 첫 손에 잡히는 綵緞의 빛깔로 자식의 性別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푸른색이면 첫아들, 붉은색이면 첫딸을 낳는다고 한다. 對馬島는 신랑측에서 술과 함께 紅白의 만두를 많이 가져오는데, 신부측에서는 이를 이웃에게 나눈다. 그리고 신랑측이 가져온 禮物을 ‘토코노마[床の間]’에 장식한 뒤 結納金의 절반을 신랑측에 대한 답례품으로 仲人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호텔의 방을 빌려 仲人和 신랑 신부 및 양가 부모를 모시고 結納式을 베푸는 경우도 많다.³⁴⁾

‘太留料’를 ‘家内喜多留’로, ‘友白髮’을 ‘友志良賀’로 부르기도 한다.

30) 황성규·한태호 편, 『일본·일본인론』, 교학연구사, 1984, 64쪽.

31) 특히 이들 품목 위에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장식물이 놓여지는 것이 특징이다. 곧 熨斗-鶴(부부의 장수)을 비롯하여 小袖料-소나무(장수와 건강, 영원한 번영), 太留料-대나무(지조와 결백), 末廣-거북이(가정의 번영), 松魚料-매화(인내)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안, 앞의 책, 72-73쪽.

32) 姜在哲, 앞의 논문, 221쪽.

33) 김덕희, 『전통혼례음식』, 광문각, 2005, 31쪽.

2. 大禮

‘大禮’는 議婚의 과정을 거쳐 결혼을 하게 된 신랑·신부가 결혼식 전날과 당일, 그리고 그 이튿날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대체로 혼례는 신부를 중심으로 행해진다.³⁵⁾

1) 예식장소로의 이동[初行]

예식 장소로 부산은 신부집 마당이, 對馬島는 신랑집과 호텔에 차려진 예식장이 대부분이다. 對馬島의 경우 극히 일부분은 佛殿·神社·교회·料亭에서 예식을 베풀었으며, 특히 神社결혼식의 경우 嚴原의 八幡神社가 가장 유명한 식장이었다. 특이하게 仲人의 집(梅田 ○, 女, 83세)에서 예식을 베풀 경우도 있다.

예식시간은 부산은 10시-12시에 베풀어지는데, 이는 해가 질 때 혼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새벽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박호○, 女, 81세), 이는 극히 예외적인 응답이다. 對馬島도 10시-12시 사이가 가장 많되, 보통 피로연이 1시부터 3시까지 베풀어지기에 11시에 예식을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식장에 들어설 때 하는 의식으로 부산은 신랑이 징 치고 무명씨를 뿌리는 가운데 입장하거나 왕겨를 넣은 가마를 밟고 입장하고, 신부는 ‘짚불넘기’·‘소금과 숯 밟고 지나가기’·‘수건을 뒤집어 쓰고 입장하기’·‘바가지 깨기’ 등의 의식을 베풀다. 對馬島에서는 신랑집에서 결혼식이 벌어질 경우 아침 일찍 仲人이 신랑과 신랑측 사람들을 이끌고 신부집에 이르게 되고, 신부측에서는 이때 간단한 酒宴을 베풀고 동시에 사위

34) 호텔에서서의 일본 結納式은 대체로 吉日の 午前에 이루어진다. 의식의 절차는 서로의 結納品을 호텔측이 제공하는 金鉢 병풍 앞에 나란히 정돈하여 놓고, 소금에 절인 벚꽃에다 뜨거운 물을 부은 ‘櫻湯’을 마신 다음, 양가의 인사, 結納品の 교환 등으로 이어진다. 結納式이 끝나면 가족 등 절친한 사람만 모인 가운데 점심을 겸한 조출한 婚約파티가 베풀어진다. 塩月弥榮子, 『塩月弥榮子の冠婚葬祭事典』, 講談社, 1988, 98쪽.

35) 이연숙, 앞의 논문, 140쪽.

와 장인·장모의 공식적인 첫 대면이 이루어진다. 이후 하루 전날 친척과 이웃을 초대하여 소위 ‘送別宴招待’라 불리는³⁶⁾ 연회를 베푼 신부가 시가에서의 결혼식을 위해 친정을 떠나는데, 이 때 집을 나서면서 자신의 밥그릇을 깨는 의식을 베푼다. 이윽고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집에선 대문 앞에 짚불을 피워 넘어가게 하거나, 솔뚜껑을 씌운 뒤 국자로 두드리면서 大荒神에게 孝行과 友愛, 그리고 <우라시마타로우[浦島太郎]>에 비견되는 長壽를 축원하는 주문을 외는 ‘카마부타카부세[釜蓋被せ]’란 의식을 치르기도 한다.³⁷⁾

荒神은 불교에서 불을 다스리는 부뚜막 귀신 곧 竈王神인데, 실제로 天道信仰이 전승되는 對馬島의 天道山 아래 仁位에는 荒神이 벽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浦島太郎>는 <모모타로[桃太郎]>·<하나사카지지[花咲爺]>와 함께 일본 전역에 가장 많이 알려진 민담의 주인공이다.³⁸⁾ 그는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북이를 살려 준 덕택에 용궁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玉상자를 열지 말라던 공주와의 약속을 어겨 그만 노인이 된 소위 ‘浦島傳説’³⁹⁾의 주인공이다. 그의 용궁 체재기간이 문헌에 따라 200년에서 370년에 이른다고 전해질 정도여서 달리 ‘不老長生傳説’로 분류되기도 한다. 결국 對馬島人들은 竈王神인 荒神에게 신부가 불을 잘 다루고 장수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36) 황성규·한태호 편, 『일본·일본인론』, 교학연구사, 1984, 65-66쪽.

37) 山口麻太郎, 『日本の民俗 長崎』, 第一法規, 1972, 215-216쪽; 『わたしたちの郷土-風俗』, 長崎縣教育委員會, 1983, 152-153쪽. 축원의 내용은 “한 발 들여놓을 때 잠시 기다리셨던 신부님! 낙숫물을 넘고 문지방 넘어 마당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솔 앞에 서셨으니, 南無三寶大荒神이시여, 부디 부모에게 효행, 자식에게 효행, 부부 사이는 물론 형제 사이도 두텁게 해주시옵소서. 학은 천년, 거북은 만년, 浦島太郎는 팔백년, 이쪽 신부는 솔뚜껑 씌워서 580년 경사스럽게 해주소서”이다. 인근 壹岐島에서는 구경꾼들이 길에 돌과 덩불을 내놓거나 물과 흙을 뿌리는 ‘완잔(ワンざん)’이란 의식을 베풀기도 한다. 같은 책, 217쪽.

38) 최인학, 「일본의 민담」, 『일본민속의 이해』, 시사일본어사, 1997, 325-326쪽.

39) 乾 克己 외, 『日本傳奇傳説大事典』, 角川書店, 1986, 143쪽. 이 책에는 ‘浦島傳説’을 구성하는 3가지 모티프로 거북의 報恩, 용궁 방문, 玉상자의 금기를 들고 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신부와 竈王神과의 연계가 두드러진다. 그것은 아무래도 부엌이 여성의 공간으로 인식된 데다 竈王信仰 역시 여성의 전유물처럼 인식된 데서⁴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부 화장은 부산은 울케·친언니·이웃사람 등이, 對馬島는 이웃이 거드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미장원에서 한다.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부산은 ‘喪中일 때’, ‘병 들었을 때’·‘혼인 날짜를 잡았을 때’, ‘점쟁이가 금했을 때’, ‘제사를 앞에 두었을 때’, ‘우환이 있을 때’, ‘임신이 나 출산했을 때’, ‘가축이 출산했을 때’이고, 對馬島는 ‘喪中일 때’, ‘우환이 있을 때’이다.

2) 奠雁禮

부산은 결혼 당일 신랑측 행렬이 ‘나무기러기’ 또는 ‘나무오리’를 네 귀 보자기에 싸들고 가서 신부집이 마련한 ‘床’에 바치는데 이를 ‘奠雁禮’라 한다. 기러기는 『朱文公家禮』에서 ‘陰陽을 따라 가고 오는 뜻을 취한 것’⁴¹⁾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이래, 예로부터 남녀 陰陽 交通의 새, 百年偕老의 새, 比翼貞節의 새⁴²⁾ 또는 信·禮·節·智의 새⁴³⁾로 여겨져 왔다. 의식이 끝나면 기러기처럼 다정하게 잘 살라는 뜻에서 신부의 아버가 나무기러기를 初夜를 치를 신방의 장롱 위에 얹어둔다. 對馬島는 닛줄을

40) 한국에서 ‘火神’ 또는 ‘財物神’으로 간주되어 온 조왕신은 부녀자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지극한 정성을 쏟는 대상이기에 가장 한국적인 모성애를 보여주는 신앙으로 보기도 한다. 표인주,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예술』, 민속원, 2004, 82쪽.

41) 朱子, 『朱文公家禮』, 卷3, 親迎, 主人出迎壻入尊雁條. 凡贅用生雁 左首以五色繒交絡之 無刻木爲之 取其順陰陽往來之義

42) 秋葉隆 저·沈雨晟 역,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127쪽.

43) 憑虛閣李氏 저·鄭良婉 역, 『閨閣叢書』, 卷4 牛亨問答, 寶晉齋, 1999, 392쪽. 기러기(雁): 작은 것은 雁이요, 큰 것은 鴻이니 네 가지 德이 있다. 즉 추우면 北으로부터 남형양에 그치고, 더우면 南으로부터 北雁門에 돌아가니 그 信이요, 난 [飛]즉 차례가 있어 앞에서 울면 뒤에서 화답하니 그 禮요, 짝을 잃은 즉 다시 짝 얻지 않으니 그 節이요, 밤인즉 무리 지어 자고 하나가 순경하고, 낮인즉 갈대를 머금어 주살을 피하니 그 지혜인 고로 禮幣하는데 쓴다.

地藏菩薩에 묶어 신부의 媿家 安着을 기원하는 해안 지방의 대체적인 풍속과 달리 별다른 의식을 행하지 않는다.

3) 결혼식[醮禮]

결혼식을 치르기 위한 신랑 신부의 복장은 일상복과 현저히 다르다. 부산은 신랑이 紗帽를 쓰고 조선조 文官의 일상복인 雙鶴 胸背를 단 官服인 남색 團領을 입은 다음 角帶를 두르고 목이 긴 黑靴을 신는다. 그리고 신부는 쪽머리에 족두리나 花冠을 쓰고 활옷이나 圓衫을 착용한다. 신랑의 복장이 입신출세의 상징인 官服이고, 신부복인 활옷과 圓衫 역시 각각 왕실 사대부 여자나 궁중 내외 命婦들의 大禮服인 데서 알 수 있듯, 이날만큼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최상층의 복식을 입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⁴⁴⁾

對馬島는 신랑은 검정색의 하부타에[羽二重]에 다섯 개의 紋樣이 찍힌 검정색 하오리[羽織]를 上衣로 입고, 아래에 검정이나 갈색의 줄무늬 넓은 바지인 승마하카마[馬乘袴]를 입는다. 그리고 신부는 우치카케[打ち掛け]·기모노[着物]·오비[帶] 등의 소품을 모두 흰색으로 하고 흰색의 모자인 츠노카쿠시[角隠し]를 쓰는 시로무쿠[白無垢]를 입는다. 신부의 예복이 흰색인 것은 순결을 상징하고 시집의 家風에 물들겠다는 의미⁴⁵⁾가 담겨 있다.

결혼식 상에 차려지는 물건으로 부산은 ‘닭·밤·대추·술·과일·쌀·대나무·소나무·떡·양초·물·명태·청실홍실’ 등이다. 닭과 청실홍실은 부부간의 금슬을, 松竹은 절개와 지조를, 대추·밤·팥·콩 등은 모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多男을 기원하는 구실을 한다.⁴⁶⁾ 對馬島

44) 표인주,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예술』, 민속원, 2004, 20쪽.

45) 김문학·김명학 편저, 『일본문화의 수수께끼』, 우석, 1998, 34쪽.; 塩月弥榮子, 『圖解冠婚喪祭』, 光文社, 1974, 35쪽.

46) 대례상에 놓인 물품에는 신랑신부가 원만한 부부생활을 누리기를 기원하고, 아들을 많이 낳아 후손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며, 부부가 백년해로하기를 기원하는 3가지 상징이 깃들여 있다. 임재해, 「의례용구에 나타난 상상체계」, 『기층문화』

는 딱히 올리는 물건이 없지만 神道式의 결혼에서는 ‘해산물[海の幸]’과 ‘사냥한 짐승이나 山 열매[山の幸]’를 神 앞에 차려 두고 의례를 베풀기도 한다.

초례상 진설물의 처리는 부산은 신부측에서 치우되 운수가 좋아진다 하여 동네에서 나눠먹거나 닭은 날려 보내고, 쌀은 밥을 해서 신랑·신부가 나눠먹기도 하며, 폐백때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對馬島에서는 신랑측이나 예식장측에서 처리하거나 종이에 싸서 집으로 가져온다.

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보고 절하는 ‘交拜禮’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을 베푸는데, 부산은 이를 ‘슴쫄禮’라 하고, 對馬島는 ‘交盃’·‘盃事’·‘杯事’라 부른다. 특히 합근례의 경우 부산은 手母가 따른 술을 신부 입에 대었다가 신랑에게 주고, 신랑 입에 대었던 술잔을 신부에게 주는 행위를 3번 반복한다. 對馬島는 신랑 신부가 仲人에 의해 小·中·大의 술잔으로 서로 9잔의 神酒를 마시고 부부의 緣을 맺는 ‘상콘노기[三獻の儀]’ 또는 ‘산상쿠도노하이[三三九度の杯]’를 행하는데⁴⁷⁾, 당사자 외에 부모와 자식간, 신랑·신부의 양친간, 친척 대표간에도 술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양 지역 모두 술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술이 神과 인간을 융합시킬 뿐만 아니라 異人一體의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⁴⁸⁾

또한 부산은 對馬島와 달리 결혼식을 통해 앞일을 예언하는 풍속이 있다. 곧 ‘날이 맑으면 좋다’·‘눈이 오면 잘 산다’·‘비가 오면 팔자가 사납다’·‘신랑이 웃으면 딸을 낳는다’·‘신부가 웃으면 딸을 낳는다’ 등이다.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중)], 민속원, 1998, 353-358쪽.

47) 첫잔은 신랑→신부→신랑의 순서로, 둘째잔은 신부→신랑→신부, 셋째잔은 첫잔과 같은 순서로 하는데, 이는 술을 통해 이질적인 요소를 없애고 하나가 되기 위한 사회적 의미와, 종족보존과 자식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행한다. 노성환, 『젓가락 사이로 본 일본문화』, 교보문고, 1997, 36-37쪽; 神崎宣武, 『三三九度一杯事の民俗誌』, 巖波書店, 2008.

48) 노성환, 『젓가락 사이로 본 일본문화』, 교보문고, 1997, 37쪽.

4) 결혼식 후의 행사

결혼식을 치른 후 부산은 신랑이 안방에 들어가 신부집에서 마련해 준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를 ‘관디벗김’이라 하며, 이어 밖으로 나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한다.

對馬島는 가족과 친척 중심의 조촐한 결혼식과 달리 수많은 초대객을 모셔놓고 披露宴을 베푼다. 피로연은 ‘밋카이와이[三日祝イ]’라 하여 3일 연속 베풀어지는 경우가 많다. 곧 1일째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 2일째는 먼 친척이나 친구, 마지막 날엔 결혼식을 도와준 사람들이 초청대상이다. 또한 예식장에서 피로연이 베풀어지기도 한다. 예식장 피로연에서는 신랑·신부가 입고 있던 결혼예복을 세 번 정도 갈아입는 ‘오이로나오시[御色直し]’가 행해진다.⁴⁹⁾ 이는 성스러운 식을 마치고 세속의 생활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결국 對馬島의 피로연은 당사자의 혼인을 주위 사람들에게 승인받고자 하는 의식으로, 새로운 사회에로의 入社儀式을 겸하고 있는 셈이다.

5) 合房禮

두 남녀가 혼인을 하여 처음으로 한 방에 들어 맞이하게 되는 밤을 ‘初夜’라 하고 이때 베풀어지는 의식을 ‘合房禮’라 한다.

初夜는 부산은 혼례가 치르지는 신부집에서 행해진다. 對馬島는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거나 신혼여행지의 호텔에서 이루어진다. 초야에서 양 지역 모두 신랑이 신부의 옷을 벗기며, 부산은 ‘촛불을 입으로 끄면 안되고 반드시 손으로 꺼야 된다.’는 초야의 금기가 전해온다. 만약 입으로 끌 경우 ‘부정 탄다.’·‘신랑이 바람을 핀다.’·‘빨리 과부가 되거나 홀애비가 된다.’·‘복이 달아난다.’고 한다. 對馬島에서는 初夜에 ‘다른 사람의

49) 일본 전통 婚禮俗에서 신부의 옷 갈아 입기는 ‘신부집에서의 예식옷(陰式, 흰색)→신랑집에서의 예식옷(陽式, 彩色)→친정집 나들이옷(신랑측의 家紋이 박힌 옷)’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김문학·김명학, 『일본문화의 수수께끼』, 우석, 1998, 33쪽.

이름을 불러서는 안된다.’는 금기가 전한다.

6) 東床禮

신부집에서 초야를 지낸 신랑은 다음날 처가 형제와 친척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하여 相見禮를 겸하여 음식대접을 하는 행사를 베푼다. 부산에서는 이를 ‘동상례’·‘신랑다루기’·‘신랑 달아매기’·‘상객 옥보이기’라고 한다. 주로 처남이나 이웃이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면서 신랑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신부와 입맞춤을 하게 하거나 장모에게 술이나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찍이 秋葉隆은 이를 “신랑의 인격을 다시 일깨우고 인격의 갱신과 생명의 비약으로 신랑될 자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시련의 축하의례”⁵⁰⁾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對馬島는 별다른 의식이 없다.

3. 後禮

‘후례’는 혼례의 중심인 결혼식을 포함한 大禮가 끝난 약 사흘 뒤부터 1년 여 사이에 베풀어지는 의례이다.

1) 첫 시가 나들이[新行]

혼례식을 치른 신부가 부부가 된 후 처음으로 孀家에 가는 것을 ‘新行’이라 한다. 부산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예식을 베푼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향하며 이를 ‘시집간다’·‘첫걸음한다’·‘신행’·‘于歸’·‘于禮’·‘삼일대반’이라고 한다. 對馬島에서는 신랑집에서 예식을 베푼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예식장에서 결혼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와 바로 孀家에 들어가며 달리 부르는 이름은 없다.

신행은 부산은 결혼식 후 약 3일 뒤에 이루어지고 신부의 아버지와 언니 및 친척들이 따라가는데, 친척의 경우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이가 선택된다. 이들을 남자들의 경우 ‘상각’·‘대반’·‘요각’, 여자들은

50) 秋葉隆 저·沈雨晟 역, 앞의 책, 139쪽. 姜在哲은 이를 ‘악령을 쫓아내고 정화시키기 위한 의례’로 본다. 앞의 논문, 227쪽.

‘웃각시’·‘하님’이라 부른다. 對馬島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신랑·신부 당사자만 시댁으로 향한다.

별다른 의식이 없는 對馬島와 달리 부산에서는 신행을 크게 出行 때의 의식, 新行 중의 의식, 시가 도착 후의 의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출행 때에는 신부가 조상에게 하직인사를 올리는 의식을 베푸는데 이를 ‘선굴례’·‘조상보기’·‘조상고사’라 부른다. 이어 신부가 부엌으로 가서 솔뚜껑을 세 번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솔뚜껑을 밟아 竈王神에 대한 하직인사와 함께 다시는 친정밥을 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또 시어미께 사랑받고 잘 살라는 뜻에서 친정어미가 시부모의 밥그릇 속에 오곡을 넣어주기도 한다.

신행 중의 의식은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에 도착하기까지 중도에서 배풀어지는 각종 의식으로, 신부가 성황당이나 냇가를 건너게 되면 봉지밥을 던진다. 봉지밥은 ‘밥·팥·돈’ 등을 종이에 싸서 것으로, 자신을 따르는 재앙·액·잡귀를 물리치는 의미를 지닌다.

신부가 시가에 도착하면 ‘소금이나 팥 뿌리기’·‘짚불 위 뛰어넘기’·‘가마에서 깔고 앉았던 방석 지붕 위로 던지기’ 등을 하거나, ‘목화씨 뿌리기’·‘친정 샘의 물을 병에 넣어와 시가 샘에 붓기’ 등의 의식을 베푼다. 前者는 친정집으로부터 따라온 災殃과 雜鬼를 물리치고 친정과의 미련을 끊고 시어른을 잘 모시겠다는 뜻이고⁵¹⁾, 후자는 바느질과 길쌈에 힘쓰고, 시가의 우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시댁으로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희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2) 見舅姑禮

신부가 시가에 와서 시부모와 孀家の 사람들에게 예를 올리고 준비해

51) 반겐넵은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는 행위를 多産의례·神聖化 의례로 간주하면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또는 한 가족에서 다른 가족으로 건너 뛰기 위한 入社의 성격도 지닌 통과의례라고 보았다. 아놀드 반겐넵 저·전경수 역, 『通過儀禮』, 을유문화사, 1985, 191쪽.

간 예물을 내놓는 것을 ‘見舅姑禮’라 하는데, 최근에는 결혼식이 끝난 뒤 예식장에서 마련한 폐백실에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부산에서는 이를 ‘폐백드린다’·‘예단 드린다’·‘이바지 올린다’·‘반감한다’·‘사관드린다’·‘들송구레’라고 부른다. 신랑·신부가 시부모에게 절을 올리면서 ‘예단·술·떡’ 등 幣帛을 바치면, 시부모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에서 폐백상에 있던 밤과 대추를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 준다. 이후 신부가 시가의 친척집을 방문하여 인사드리는 의식이 베풀어지는데, 이를 ‘回家돌리간다’·‘어른 뵈러 간다’·‘인사돌린다’라고 한다. 對馬島에서는 신부가 披露宴을 치른 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인사를 올리는데 이는 시가의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入社儀禮의 성격을 지닌다.

3) 觀親

결혼한 신부의 첫 친정나들이를 ‘觀親’이라 하는데 이는 모든 혼례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 부산은 신부가 대체로 만 1년 만에 첫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으로 술과 떡을 장만해 가지고 친정을 찾는다. 이를 부산에서는 달리 ‘勤行’·‘첫 친정간다’·‘근친 걸음한다’·‘再行한다’·‘재인(丈人)걸음한다’라고 한다. 특히 근친을 달리 ‘재인(丈人)걸음’이라 한 데서 알 수 있듯, 觀親은 신부의 첫 친정나들이의 의미도 있지만, 일정 기간을 지낸 후 ‘사위의 장인어른 뵈기’의식임을 엿볼 수 있다.⁵²⁾ 우리 전통혼례에서는 이 의식을 치러야 모든 혼례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간주한다.⁵³⁾ 對馬島에서는 부산의 ‘新行’처럼 신랑집에서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3일만에 친정으로 향하며, 이를 ‘하츠사토카에리[初里歸り]’·‘미츠

52) 실제 우리의 <바보사위>류 설화에서는 신부가 자신은 시가에 있으면서 신랑에게 떡과 술을 안겨서 친정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흔하게 전한다. 밀양문화회 편, 『밀양설화집3·민담(2)』, 밀양시, 2008, 173-174쪽, <대문도 못 찾는 바보사위>·<바보신랑(2)> 참조.

53) 이광규, 『한국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76쪽.

메카에리[三つ目歸り]·‘사토카에리[里歸り]’라 부른다.⁵⁴⁾ 이때 신부는 술·떡·부채·白麻와 함께 紅白의 만두 등을 들고 가서 친척과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IV. 婚禮俗에 반영된 두 지역민의 의식세계

앞에서 살핀 것처럼 부산과 對馬島의 혼례속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를 테면 결혼의 적령연령, 중매인의 명칭, 여자 말띠를 신부감으로 꺼리는 점, 음력 2월 결혼을 꺼리는 점, 품목마다 상징적 의미가 담긴 納幣(봉채·結納)이 있는 점, 예식장에 들어서기 전 쥬불을 태우고 넘어가거나 그릇을 깨는 점, 오전에 예식이 베풀어지는 점, 집안에 ‘喪’을 당하거나 ‘憂患’이 있는 사람을 賀客으로 꺼리는 점, 交杯禮와 合卺禮 및 신부의 첫 친정나들이 의식이 있는 점, 신부가 시가에 도착하여 쥬불을 넘거나 술뚜껑과 관련된 의식을 베푸는 점, 혼례가 끝나면 궁극적으로는 신부가 신랑의 집에 들어가 사는 형태를 띠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양 지역의 혼례속에서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친연성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두 지역이 12세기부터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서 무역과 외교의 중개역할을 자임해 온 데다, 1428년부터 1811년까지 지속된 통신사의 일본 방문때 양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京都와 東京를 함께 오고간 점, 三

54) 이를 필자가 2001년 답사한 바 있는 山口縣 萩市の 大井浦에서는 혼례로 오래 앉아 아프게 된 무릎을 풀어 치료한다는 의미로 ‘히자나오시[膝直し]’라 부르기도 했다. 『萩市郷土博物館研究報告』7호, 萩市郷土博物館, 1996, 104쪽 참조. 福田アジオ(『日本民俗大辭典』上, 吉川弘文館, 2000, 704쪽)에 의하면 ‘사토카에리[里歸り]’는 혼례후 수일 내에 행하는 ‘初里歸り’를 뜻하지만 廣義로는 正月을 비롯한 명절에 가는 ‘里歸り’, 의류제조를 위해 가는 ‘長期里歸り’, 시가와 친정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里歸り’ 등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의식이다.

浦開港 이후 1876년까지 무려 500-1000명 이상의 對馬島인들이 부산의 ‘倭館’에 상주한 데다, 오랜 기간 농경문화·불교문화·유교문화를 공유했던 같은 문화권에 속한 지역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빈번한 접촉으로 인한 혼례속의 교류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질적인 요소도 많이 발견된다. 중매인이 이웃이나 친척인 부산에 비해 對馬島는 직장상사나 선배라는 점, 중매인에 대한 謝禮가 對馬島에서는 보편적인데 부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대부분 궁합을 보는 부산과 달리 對馬島에서는 궁합을 거의 보지는 않지만 厄年 풍속에 기대어 특정 나이가 결혼의 장애요소가 되는 점, 점쟁이집에서 택일하는 부산과 달리 對馬島는 가족과 당사자가 택일하되 吉日을 ‘六輝’에 의해 따지는 점, 신랑 친구나 집안 사람들이 봉채함을 들고가는 부산과 달리 對馬島에서는 ‘仲人’이 들고 가는 점, 신랑이 들고 온 納幣物을 통해 앞일을 예언하는 부산과 달리 對馬島는 없는 점, 奠雁禮가 강조되는 부산과 달리 對馬島는 그런 의식이 행해지지 않는 점, 결혼식을 부산에서는 신부의 집에서, 對馬島는 신랑집이나 예식장에서 거행하는 점, 초례상의 진설물이 풍부한 부산과 달리 對馬島에선 神社결혼식 외엔 진설물이 중시되지 않는 점, 결혼식에서 신랑이 禮服을 1번 갈아입는 부산과 달리, 對馬島에서는 신랑·신부가 평균 3-4회 정도에 걸쳐 예복을 갈아입는 점, 많은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예식이 베풀어지는 부산과 달리 對馬島는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예식을 치르고 바로 이어 별도로 많은 하객을 모신 가운데 예식이 베풀어지는 점,⁵⁵⁾ 결혼식 행사 중 일어나는 일로 미래를 예언하거나 ‘신랑다루기’를 하는 부산에 비해 對馬島는 없는 점, 後禮가 강조되는 부산에 비해 對馬島는 後禮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화되어 있는 점 등이다.

55) 일본의 피로연은 결혼식 후의 다른 행사가 아니라 賀客들에겐 바로 ‘결혼식’과 같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홍윤기, 『일본문화백과』, 서문당, 2000, 128쪽.

이와 같은 차이점은 양 지역 특유의 생활습속에서 비롯된 자생적 문화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미 양 지역의 産育禮에서 확인된 것처럼⁵⁶⁾ 크게 ‘가족주의 의식의 강조’와 ‘지역사회 귀속의식의 강조’의 차이로 볼 수 있겠다. 곧 부산은 개개의 가족성원보다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중시하는데 비하여, 對馬島은 대체로 지역사회의 집단의식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부산은 혼례의 전 과정에 가족이나 친척이 모두 개입하며 개개의 과정이 다 중요하게 적용되는데 비해, 對馬島은 ‘仲人’을 비롯한 직장 상사나 선배의 역할이 크고 가족의 개입이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사회관계는 가족관계가 확대 적용된 관계이다. 가정 내에서의 윤리와 도덕이 그대로 사회집단에 적용되어 직장의 상사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며, 부하는 자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에(家)조직에 기초한 사회이다.⁵⁷⁾

특히 仲人은 家와 家를 연결하는 매개자로 婚談이 오가는 순간부터 개입하여 納幣의 운반과 결혼식 및 피로연의 주재자가 된다. 게다가 첫 자식을 출산할 때도 이름을 지어주어 축하의식을 베풀고, 이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擬制的 親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⁵⁸⁾

하지만 이와 같은 세부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떠나 양 지역의 혼례 속은 공통적으로 혼례가 개인과 개인의 일생만 결정짓는 의례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 친족과 친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을과 마을을 관계 짓는

56) 한태문, 「釜山과 對馬島의 産育禮 비교 연구」, 『한국민족문화』 24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444-445쪽.

57) 구견서, 『현대일본문화론』, 시사일본어사, 2000, 272-273쪽.

58) 倉石あつ子 외, 『人生儀禮事典』, 小學館, 2000, 142-143쪽과 황달기, 「혼례에 있어서의 혼수의 의미」, 『일본학보』 25집, 한국일본학회, 1990, 436쪽을 참조. 多田道太郎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仲人の 존재를 일본의 ‘쿠션형 커뮤니케이션’의 전통을 이은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다다 미치다로 저·김행원 역, 『생활 속의 일본 문화』, 小花, 1997, 43-45쪽.

생활의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말하자면 혼례가 생활단위로서의 地緣意識과 유교적 血緣意識을 접합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⁵⁹⁾ 그 결과 양 지역의 혼례속은 두 개인의 결합으로 독립된 가계를 형성하는 서양과 달리, 두 가문의 결합으로 공동가계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전통 사회의 ‘家族主義’는 물론,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는 ‘入社統合意識’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부산과 對馬島의 혼례속을 편의상 議婚, 大禮, 後禮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議婚의 경우 부모에 의한 배우자의 선택·중매인의 개입·말띠 여자의 기피·納幣의 존재 등에서 공통점을 보인 반면, 通婚圈·중매인의 자격·擇日·納幣物을 통한 길흉 예측 등에서는 부분적 차이를 보인다.

둘째, 大禮의 경우 예식시간·신부 입장시의 의식·交拜禮·삼쫄禮 등에서 공통점을 보인 반면, 對馬島는 奠雁禮·東床禮·醮禮床 陳設과 같은 의식이 없고, 예식장소·초례상 진설물·예복 갈아입기·初夜 장소 등에서 부분적 차이를 보인다.

셋째, 後禮의 경우 신부의 첫 친정나들이와 시가에 도착한 신부가 행하는 儀式 등에서 공통점을 보인 반면, 부산에 비해 對馬島가 상대적으로 後禮가 너무 약화된 차이점이 드러난다.

넷째, 이처럼 양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친연성 및 농경문화·불교문화·유교문화를 공유한 같은 문화권에 속한 까닭에 공통점을

59) 장철수, 「인간을 위한 의례의 의미」,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중)』, 민속원, 1998, 33쪽.

보이는 한편으로, 각각 ‘가족주의’와 ‘지역사회로의 귀속의식’을 중시하는 양 지역민의 의식 때문에 부분적인 차이점도 많이 발견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 지역의 혼례속은 생활단위로서의 地緣意識과 유교적 血緣意識을 접합함으로써 家族主義와 入社統合意識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의 민속연구가 지니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의 한계 때문에 보다 세밀한 연구로 나아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釜山과 對馬島의 통과의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앞선 ‘産育禮’ 연구에 이어 연속성을 지니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과,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과정인 ‘喪禮俗’ 연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乾 克己 외, 『日本傳奇傳說大事典』, 角川書店, 1986.
- 對馬觀光物産協會, 『つしま百科』, 昭和堂, 2002.
- 對馬教育會 편, 『増訂對馬島誌』, 名著出版, 1973.
- 梅棹忠夫 편·김양선 역, 『일본인의 생활』, 혜안, 2001.
- 美津島町誌編輯委員會, 『美津島町誌』, 美津島町役場, 1978.
- 福田アジオ 외, 『日本民俗大辭典』下, 吉川弘文館, 2000.
- 山口 健, 『婚禮事典』, 西東社, 1992.
- 山口麻太郎, 『日本の民俗 長崎』, 第一法規, 1972.
- 小松勝助, 「對馬民俗ノート」, 『對馬風土記』24호, 對馬郷土史研究會, 1988, 34쪽.
- 神崎宣武, 『三三九度一杯事の民俗誌』, 巖波書店, 2008.
- 『日本民俗學大系』, 平凡社, 1959.
- 『萩市郷土博物館研究報告』7호, 萩市郷土博物館, 1996.
- 塩月弥榮子, 『塩月弥榮子の冠婚葬祭事典』, 講談社, 1988.
- 長崎縣教育委員會, 『わたしたちの郷土-風俗』, 1983.
- 倉石あつ子 외, 『人生儀禮事典』, 小學館, 2000.
- 秋葉隆 저·沈雨晟 역,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 『日本 對馬・壹岐島 綜合學術調査報告書』, 서울신문사, 1985.
- 강남주, 「한국 남해 도서와 일본 對馬島の 민속문화와 문학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13집, 비교민속학회, 1996, 281-338쪽.
- 강재철, 「韓國 婚禮에 나타난 諸習俗의 象徵性 考察」, 『비교민속학』16집, 비교민속학회, 1999, 211-232쪽.
- 김문학·김명학 편저, 『일본문화의 수수께끼』, 우석, 1998.
- 김승찬 외, 『기장군 문화유적과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 김용안,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響』, J&C, 2004.
- 노성환, 『젓가락 사이로 본 일본문화』, 교보문고, 1997.
- 박혜인, 『한국의 전통혼례연구 : 胥留婦家婚俗을 中心으로』, 高大民族文化研究院出版部, 1988.
- 憑虛閣李氏 著・鄭良婉 譯, 『閨閣叢書』, 卷4 牛亨問答, 寶晉齋, 1999.
- 이광규, 『한국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 이연숙, 「絶離와 統合으로 본 통과의례의 공통성과 그 의미-혼례와 장례를 중심으로」, 『새얼語文論集』 16집, 새얼어문학회, 2004, 133-158쪽.
- 장하경,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14집, 한국가정관리학회, 1996, 147-161쪽.
- 崔仙銀・劉頌玉, 「韓國과 日本의 婚姻儀禮에 따른 婚禮服飾 비교연구-조선후기와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예술학회지』1집, 한국동양예술학회, 2000, 225-261쪽.
- 최인학 외,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중)』, 민속원, 1998.
- 편무영, 「일본인의 인생의례」, 『일본민속의 이해』, 시사일본어사, 1997, 143-188쪽.
- 표인주,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예술』, 민속원, 2004.
- 한대문, 「釜山과 對馬島의 産育禮 비교 연구」, 『한국민족문화』24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407-451쪽.
- 홍윤기, 『일본문화백과』, 서문당, 2000.
- 황달기, 「혼례에 있어서의 혼수의 의미」, 『일본학보』25집, 한국일본학회, 1990, 431-455쪽.
- 황성규・한태호 편, 『일본・일본인론』, 교학연구사, 1984.

<Abstract>

The study of between Busan and Tsushima
about the rites of marriage ceremony

Han, Tai-Moon

This paper is compared traditional marriage ceremony between Busan and Tsushima among rites of passage.

When looking into their marriage ceremony by dividing it into three categories; Uihon(議婚), Daerye(大禮), Hurye(後禮), Uihon of the cities had in common something such as marriage partners chosen by the parents instead of his or her own will, mediation of matchmakers, disfavor against women born in the Year of the Horse as spouses and presence of wedding gifts exchanged between the bride and the groom.

On the other hand, It showed some differences in districts where they were allowed to find marriage partners, qualification for matchmakers, a way of setting a wedding date and predicting good or ill luck, and fortune or misfortune from wedding presents.

As for Daerye, the two cities shared common traits in reference to the amount of time spent on function, rites during a bride's entering, Kyobaerye(交拜禮), Hapgeunrye(合卺禮), with partial differences in venues of the ceremony, stuff placed on the altar, changing the dresses in the process of the wedding and Jeonanrye(奠雁禮), Dongsangrye(東床禮)-kinds of rites-which existed in Busan, but not in Tsushima.

And when it comes to Hurye, the writing showed that while the both regions were sharing some points of sameness in such events like the first visit to a bride's home by the couple after their wedding and in rites performed by the bride when returning to the house of the husband's family following the visit to her home, it was too much less developed in Tsushima than in Busan.

As mentioned at first, such common features founded in the both's marriage ceremony are derived from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historically close relations with each other. They also resulted from the fact that Korea and Japan belong to the same cultural area with farming, Buddhism and Confucianism.

And the differences are attributed to the collective view of residents in Busan and Tsushima; considering families and assimilating into the local community more important respectively.

Above all, however, this paper made clear that those traditional marriage ceremonies in the two areas are both reflecting familism and the sense of adaptation to a new society by combining consciousness of kind as a unit of living with a sense of blood relation on the basis of confucianism.

Key Words : marriage ceremony, Uihon, Daerye, Hurye, familism

■ 논문접수 : 2009년 7월 10일
■ 심사완료 : 2009년 8월 5 일
■ 게재확정 : 2009년 8월 10일